

# 중국, 선박의 급격한 증가로 선원 공급부족 심화

## 1만3,000여명 부족, 일반공대 출신자 선원 전환

중국은 자국적 선박 증가율이 선원 공급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국적선원 부족현상이 심각되고 있다.

중국은 76개 해양대학에서 매년 1만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나, 1만3,000명이 부족하여 일반 공대 출신학생들을 선원으로 전환시키거나 낙후된 서 중국 지역의 젊은 학생들로 충원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에는 모두 50만 명의 선원들이 있으며, 이 가운데, 13만명이 고급 사관이다. 중국 해사안전청에 따르면, 외국 선사들의 경우 현재 중국 선원 4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미트로폴로스(Mitropoulos)는 최근 선전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중국 선원들은 자질 강화를 위하여 영어능력을 한 층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숙련된 중국선원들은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급선원들의 임금은 20%나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자유 해기사들은 중국 국영해운회사나 선원공급회사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제해운연맹(International Shipping Federation)과 BIMCO가 공동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고급사관은 47만 6,000명이 필요한 반면, 공급은 46만 6,000명에 그쳐 2%에 해당하는 1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49만9,0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급은 47만2,000명에 그쳐 2만 7,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외항선원 공급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4만2,709명의 고급사관과 7만9,504명의 일반선원을 공급했다.

세계 선원공급 시장에서 주도적인 필리핀은 고급사관 4만6,359명과 선원 7만4,040명을 공급함으로써 규모 면에서 중국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싱가포르, 정기선사 협의체 공식 인정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정기선사 협의체(agreement)이 앞으로 싱가포르의 경쟁쟁법(Competition Act) 적용 면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임정보를 공표하고, 추가적인 정보들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로이즈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는 정기선사의 경쟁법 면제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공표하고, 4월27일까지 공론에 붙인다는 것이다.

싱가פור는 지난 5년 동안 인정되었던 정기선동맹에 대한 경쟁법 적용면제는 동맹, 얼라이언스, 선박공유협정 등 각종의 협의체를 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정기선사들의 주장에 따라 이루어졌다.

싱가포르가 이번에 공표한 안에 따르면, 정기선사들의 각종 협의체는 정기선사들이 회원사의 자율적 계약체결권 인정 등과 같은 일정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경쟁법 면제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